

1.

정답 ③

해설

효용함수는 함수 값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 크기의 순서만 중요하다.

가.  $100u+200$ 으로 순서가 그대로 유지된다.

라.  $3u^{0.5}-100$ 으로 순서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니면 한계대체율이 똑같이 나오는 함수들을 골라도 된다.

2.

정답 ②

해설

$$\ln x = \ln k + a \ln p_x + b \ln p_y + c \ln p_z + d \ln m$$

가.  $d \ln x / d \ln p_x = a$ 이므로  $-a$ 가 수요의 가격탄력성

$d \ln x / d \ln m = d$ 이므로  $d$ 가 수요의 소득탄력성

그런데 정상재이므로  $-a$ 와  $d$  모두 0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ad < 0$

다. 모든 가격과 소득이 동일하게 변화하면 수요량은 불변이다.

만약 모두  $r$ 배 증가한다면 모든  $r$ 에 대하여  $r^{a+b+c+d}=1$ 이 되어야 하므로  $a+b+c+d=0$ 이다.

3.

정답 ④

해설

앞서 말한 대로 효용함수의 값은 의미가 없다.

① 0이라고 해서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②  $-3$ 이라고 해서 효용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③ 그냥  $B$ 를  $A$ 에 비해 선호한다 라고만 말할 수 있다.

4.

정답 ③

해설

콕-더글라스 효용함수이므로 항상  $x$  지출에 소득의  $1/3$ ,  $y$  지출에 소득의  $2/3$ 을 쓴다.

가격 변화 전 :  $x=10, y=10 \rightarrow$  가격 변화 후 :  $x=10, y=20$

①②  $x$ 재 소비량은 불변

④ 각각  $1/3, 2/3$ 을 지출한다.

5.

정답 ②

해설

한계대체율을 구해보면  $x^{-0.5}$ 이므로 그 값이  $y$ 와 무관하고,  $x=4$ 일 때 한계대체율은  $1/2$ 이다.

상품권을 받는 것은 현물보조로 생각하면 된다. 현금보조가 그대로 평행이동하는 것과 달리

현물보조는 보조수량에서 예산선이 꺾인다. 그 점은  $(4, a)$ 일텐데 이 점에서의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의 크기에 따라 보조 결과가 다르다. 한계대체율은  $1/2$ 라고 했으므로 상대가격이

이보다 크면 현물보조의 경우  $(4, a)$ 를 선택하는데 현금보조의 경우 그보다 더 왼쪽 위의

점을 선택하고 더 큰 효용을 얻는다. 반면 한계대체율보다 상대가격이 작으면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의 선택점이 같아진다.

가. 맞는 말이다.

나. 소비점이 같으므로 효용도 같다.

다. 맞는 말이다.

설명이 잘 와닿지 않으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쉬울 것.

6.

정답 ④

해설

가. 알 수 없다.

나. 교차탄력성이 0보다 작은 경우 보완재이다.

7.

정답 ③

해설

주어진 효용함수에서  $x=y=u$ 가 되도록 소비해야 하므로 지출함수를 구하면  $(px+py)u$ 가 된다.

한편, 수요함수는 각각  $M/(px+py)$ 이다.

가격 변화 전 :  $x=4, y=4, u=4$

가격 변화 후 :  $x=3, y=3, u=3$

보상변화는 변화 전 효용을 새로운 가격에서 얻기 위한 지출을 구해야 한다.

$(3+1)4=16$ 의 지출이 필요하므로 보상변화는  $16-12=4$ 이다.

대등변화는 변화 후 효용을 기존의 가격에서 얻기 위한 지출을 구해야 한다.

$(2+1)3=9$ 의 지출이 필요하므로 대등변화는  $12-9=3$ 이다.

따라서  $CV=EX+1$ 이다.

8.

정답 ①

해설

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경우 확장경로가 원점에서 나가는 직선이다.

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는  $a+b$ 의 값에 따라 규모수익이 결정된다.

1보다 크면 IRTS, 1이면 CRTS, 1보다 작으면 DRTS이다.

그러니  $a, b$ 가 1보다 작다고만 해서 알 수 없다.

다. 효용함수라면 이 말이 맞는데 생산함수는 그 값이 구체적인 생산량을 의미하므로

함수를 변환하면 다른 생산기술을 의미하게 된다.

9.

정답 ①

해설

$L=K/6=Q$ 가 되도록 생산요소를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함수는  $C=wL+rK=12Q+18Q=30Q$ 가 된다.

10.

정답 ②

해설

개별기업의 경우  $P=MC$ 가 되도록 생산하므로  $P=50q \rightarrow q=P/50$

기업이 100개 있으므로 전체 생산량은  $Q=100q=2P$

균형은  $2P=60-P \rightarrow P=20, Q=40$

11.

정답 ①

해설

공급자에 보조금을 주는 경우 공급곡선이 보조금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보조금이  $s$ 인 경우 수식으로 나타내면  $Q=30+2(P+s)$ 가 된다.

가격이 26일 때 수요는  $120-26=94$ 이다.

$P=26, Q=94$ 를 식에 대입하면  $94=30+2(26+s) \rightarrow s=6$

따라서 1단위당 6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된다.

12.

정답 ②

해설

$TC=AC \times Q=(1/2)Q^2+18 \rightarrow MC=Q$

수요곡선 :  $P=60-(1/2)Q \rightarrow MR=60-Q$

수요곡선이 직선이면 MR은 P절편은 같고 기울기만 2배해주면 된다.

$MR=MC$ 가 되도록 생산량을 결정하므로  $Q=30, P=45$

한편,  $Q=30$ 에서 MC의 높이는 30

완전경쟁에서의 생산량은  $P=MC \rightarrow 60-(1/2)Q=Q \rightarrow Q=40$

따라서 후생손실은  $(40-30) \times (45-30) \div 2=75$

말로만 써서 좀 복잡한데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다.

13.

정답 ④

해설

내쉬균형은 각 경기자들이 자신의 전략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상황을 말한다.

가. 기업1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1은 굳이 가격을 더 내릴 이유가 없고 가격을 올려서 시장을 절반 잃을 이유도 없다.

기업2는 가격을 내리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굳이 내릴 이유가 없고

가격을 올려도 상황은 똑같으므로 올릴 이유도 없다.

다. 이 경우도 기업1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기업1은 굳이 가격을 더 내릴 이유가 없고 가격을 올려서 시장을 절반 잃을 이유도 없다.

기업2는 내려도 이윤이 똑같이 0이므로 내릴 이유가 없고

가격을 올려도 상황은 똑같으므로 올릴 이유도 없다.

14.

정답 ④

해설

정석대로 하면 추종자인 기업2의 반응함수부터 구한다.

$Max (30-q_1-q_2)q_2-6q_2$

$q_2$ 로 편미분하면  $30-q_1-2q_2-6=0 \rightarrow q_2=12-(1/2)q_1$

한편 기업1은 기업2의 반응함수를 제약으로 하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Max (30-q_1-q_2)q_1-6q_1 \text{ s.t } q_2=12-(1/2)q_1 \rightarrow Max [18-(1/2)q_1]q_1-6q_1$

$q_1$ 로 미분하면  $18-q_1-6=0 \rightarrow q_1=12, q_2=6$

팁으로 지금까지 두 기업의 한계비용이 똑같이 상수인 경우에는

선도자가 완전경쟁시장 수량의 2/4, 추종자가 1/4를 생산한다.

$P=a-bQ, MC=c$ 로 놓고 풀어보면 모든  $a, b, c$ 에 대해 성립한다.

기업1의 생산량이 2배가 되는 선택지가 ④밖에 없어서 빠르게 풀 수 있다.

15.

정답 ④

해설

MR1=MR2=MC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시장1의 경우  $P=120-2Q_1 \rightarrow MR=120-4Q_1$

시장2의 경우  $P=90-Q_2 \rightarrow MR=90-2Q_2$

한편,  $MC=20$

$120-4Q_1=20 \rightarrow Q_1=25, P_1=70$

$90-2Q_2=20 \rightarrow Q_2=35, P_2=55$

16.

정답 ②

해설

두산의 경우  $\text{Max} (200-2P_a+P_b)P_a$

$P_a$ 로 편미분하면  $200-4P_a+P_b=0$

키움의 경우  $\text{Max} (100-2P_b+P_a)P_b$

$P_b$ 로 편미분하면  $100-4P_b+P_a=0$

두 식을 연립하면  $P_a=60, P_b=40$

17.

정답 ③

해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직선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탄력성을 기울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기울기의 역수를 탄력성이라고 봐도 된다.

수요곡선 기울기는 2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2

공급곡선 기울기는 1이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

수요탄력성 : 공급탄력성 = 1:2이므로

소비자부담 : 생산자부담 = 2:1이다.

따라서 각각 4, 2를 부담하게 된다.

풀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그냥 각 곡선의 기울기만으로 바로 계산이 된다...

18.

정답 ③

해설

구매자는 품질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기댓값을 지불하려고 한다.

2/5가 고품질이므로  $(2/5) \times 400\text{만} + (3/5) \times 200\text{만} = 280\text{만원}$ 이 된다.

그런데 판매자는 고품질은 300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저품질만 내놓게 된다.

결과적으로 저품질만 시장에 나와 있게 되고

이를 알게 되는 구매자는 지불의사금액을 200만원으로 형성한다.

따라서 저품질만 200만원에 거래된다.

19.

정답 ②

해설

가. 위험프리미엄=기대값-확실성대응액

기댓값 :  $0.25 \times 100 + 0.75 \times 36 = 52$

확실성대응액 :  $0.25 \times \text{루트}100 + 0.75 \times \text{루트}36 = \text{루트}$ (확실성대응액)

$$\text{확실성대응액} = 49$$

따라서 위험프리미엄은 3이다.

나. 확실성대응액이 49라는 것은 지금 이 복권은 49원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50원을 주면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20.

정답 ②

해설

왈라스법칙에 의하면 초과수요가치의 합은 0이다.

$$p_1z_1 + p_2z_2 + p_3z_3 = 0$$

$$30 - 20 - 5p_3 = 0$$

$$p_3 = 2$$

21.

정답 ③

해설

$$\text{GDP디플레이터} = (400 \times 8 + 500 \times 8 / 400 \times 5 + 500 \times 4) \times 100 = 180$$

$$\text{소비자물가지수} = (200 \times 8 + 250 \times 8 / 200 \times 5 + 250 \times 4) \times 100 = 180$$

22.

정답 ②

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이 60%이면 나머지 40%가 비경제활동인구인데 1,000만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는 1,500만이다. 그중 10%가 실업자이니 실업자는 150만이다.

23.

정답 ③

해설

통화승수 구하라는 문제이다.

$$M(\text{통화량}) = C(\text{현금}) + D(\text{예금})$$

$$H(\text{본원통화}) = C + Z(\text{지준금}) = M \times \text{현금통화비율} + D \times \text{지급준비율}$$

$$= M \times \text{현금통화비율} + M \times \text{예금통화비율} \times \text{지급준비율}$$

$$= M \times (1/5 + 4/5 \times 1/4)$$

$$= 2/5 \times M$$

따라서 통화승수는  $5/2 = 2.5$ 이고, 통화량은  $2,000 \times 2.5 = 5,000$ 이다.

24.

정답 ①

해설

엄밀히 말하면 IS곡선은 실질이자율 평면, LM곡선은 명목이자율 평면에 그려야 한다.

이걸 반영해서 한 평면에 두 곡선 모두 나타내면 한 곡선을 조정해야 한다.

실질이자율 평면에 나타내는 경우 LM곡선은  $M/P = L(y, r + \pi_e)$ 이 된다.

이때 디플레이션이 기대되면( $\pi_e$  감소) 균형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r$ 이 상승해야 한다.

이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LM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질이자율이 상승해서 투자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줄어든다.

25.

정답 ③

해설

완전고용이라고 해서 자연실업률이 0인 것은 아니다. 마찰적 실업 같은 실업이 있을 수 있다.

26.

정답 ①

해설

인구가 감소하면 1인당 변수들이 순간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다른 변수들이 그대로이므로 결국 원래의 안정상태로 돌아간다.

27.

정답 ④

해설

1인당 자본은 불변이다.

28.

정답 ④

해설

① 작다

② 일정하다

③ 일정하다

29.

정답 ④

해설

가.  $Y-A=NX$ 이므로  $Y < A$ 이면  $NX < 0$ 이다.

나.  $Y-C-G-I=NX \rightarrow (Sp-I)+(T-G)=NX$

좌변의 두 항이 모두 0보다 작아지므로  $NX < 0$ 이다.

다.  $100+40+30+NX=150 \rightarrow NX=-20$

30.

정답 ②

해설

생산량을 늘리고 물가를 하락시키려면 AS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AS곡선이  $Y=Y_f+a(P-P_e)$ 의 형태라고 하면  $P_e$ 를 낮추면 곡선이 그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시간 잡고 풀 때는 답을 못 고른 문제...

정책은 원래 총수요 곡선을 움직인다고만 생각해서 위 설명과 같은 생각을 못했다.

총공급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 공급 충격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하면

물가든 생산이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31.

정답 ①

해설

정부지출과 세금을 같은 크기로 증가시켜도 그냥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생각하면 된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순수출이 감소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환율 하락 압력으로 인해 외환 매입, 원화 매각을 하게 된다.

② 악화(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

③ 불변

④ 절상

32.

정답 ②

해설

이자율 평형 : 환율변화율 = 자국 명목이자율 - 외국 명목이자율

상대 구매력평가 : 환율변화율 = 자국 인플레이션율 - 외국 인플레이션율

② 절상이다. 환율변화율이 -2%이기 때문이다.

33.

정답 ③

해설

$Y=C+I+G$

$7400=1000+0.8(7400-100)+500-1000 \times 0.02+G$

$G=80$

$T=100$ 이므로 재정수지는 20 흑자이다.

34.

정답 ④

해설

희생률은 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출 때의 GDP 감소율이다.

필립스곡선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고

문제에서 실업률과 GDP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으니 이 둘을 연결하면 된다.

우선 필립스곡선에서 인플레이션율이 1%p 낮아질 때 실업률은 4%p 상승한다.

그리고 그때 GDP는 8% 감소한다.

따라서 희생률은 8이다.

35.

정답 ①

해설

다. 외부시차가 더 긴 것은 통화정책이면 피할 수 없는 성질이다.

재량이고 준칙이고 차이가 없다.

36.

정답 ②

해설

IS곡선이 완만해진다. IS곡선 수식을 통해서 봐도 되고

그냥 생각해봐도 이자율이 내려가서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IS곡선이 우하향하는 건데

이때 Y가 증가하면서 투자가 또 늘어나는 효과가 추가되므로 결과적으로 Y 증가폭이 커질 것이다.

잘 모르겠으면 수식이나 그림으로 해결하는 것이 확실하다.

37.

정답 ③

해설

나머지 선택지가 너무 맞아서 답을 ③으로 하긴 했는데 좀 이상하다.

리카도 대등정리의 요지는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으면 국공채로 하든 조세로 하든 효과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③에서 정부지출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으니 일정하다고 보면

국공채 발행하고 세금 인하하는 것은 그냥 세금을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걸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고 세금 깎은 만큼을 전부 저축해서 미래에 조세 납부에 쓰게 된다.

③이 틀린 선택지인 것은 그래도 전부 저축하지는 않고 조금은 소비에 쓸 것이다 이런 이유인건지...

38.

정답 ①

해설

세금을 인하하면 조세수입이 증가한다고 봤다.

39.

정답 ④

해설

국제수지 적자면 외환 초과수요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러면 환율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환을 매입이 아니고 매각해야 한다.

40.

정답 ③

해설

시간 잡고 풀 때는 좀 헤맸던 문제이다.

제대로 하려면 IS곡선과 LM곡선 놓고 연립해서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변동환율제도 + 완전한 자본이동의 경우에는

재정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점을 활용하면 빨리 풀 수 있다.

국민소득 : 불변

소비 : 소득이 불변이므로 불변

투자 : 이자율이 불변이므로 불변

결국 정부지출이 변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로 순수출이 변해야 한다.

정부지출이 200 증가하므로 순수출은 200 감소해야 한다.

덧붙여 실질환율은 어떻게 써먹으라고 넣은건지 잘 모르겠다.